



초임교사의 사회과 수업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

이서영¹

《 요 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사회과 수업자료 활용 양상과 특징을 단일 사례 질적 연구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수업 관찰, 심층 면담, 문서 자료 분석 및 교사 저널을 활용한 삼각측정 방법으로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개인적 수업관은 개인의 경험과 같은 내적 요인과 학생 반응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이는 수업자료 선택과 활용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 교사는 5학년 역사 단원 수업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학습지, 시뮬레이션 활동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의 탐구와 참여를 촉진하였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자료와 교과서 한계를 극복하며, 수업관과 ‘사회과 본질관’이 내용교수지식(PCK)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수업자료 선택·개발·재구성 행위는 초임교사의 전문성 성장과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에 핵심적임을 밝혔다.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재미와 의미의 조화’ 전략으로 극복하는 교사의 노력은 초임교사 지원 정책이 교사의 자율성과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초임교사, 사회과 수업자료, PCK,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관, 재구성

1.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oonue@snu.ac.kr (주저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초임교사는 교직 경력 3년 미만의 교사로, 교실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교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수업 현안들과 마주한다. 이들은 높은 책임감 속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된다(권순효, 2019).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교사가 속한 학교의 분위기나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등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황수지, 2019).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특성상, 특정 교과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기 쉬우며(손형국 외, 2018), 이는 교사 전문성의 핵심인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설규주, 2009; 설규주, 2012).

이러한 초임교사의 개인적 고충은 단순히 교과서에 의존하던 과거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넘어,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재구성과 성취기준 기반의 수업 운영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 흐름 속에서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이호담, 2018; 정하나, 홍원표, 2024). 오늘날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습 목표와 내용을 재구성하고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이효진, 박인우, 2022; 유성열, 정광순, 2020). 이러한 변화는 경력교사에게도 도전적이지만, 현장 적응과 전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초임교사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모든 교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그 구현 방식이 달라진다. 특히 사회과는 교과서 외에도 지도, 그래프, 사진, 도표,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자료를 필수적으로 활용하여 교과 역량을 달성해야 하는 대표적인 교과이다(교육부, 2024). 사회과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교육부, 2024), 이러한 역량은 단일한 텍스트가 아닌 다층적인 자료의 해석과 활용을 통해 길러진다. 즉, 사회과에서 수업자료는 학습 내용을 보충(보완적 기능)하거나 핵심 개념을 전달(설명적 기능)하는 단순한 매개체를 넘어, 그 자체가 수업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전숙자, 2001).

결국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사의 ‘수업자료 선택과 변형’을 통해 교실에서 구체적인 수업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초임교사가 어떤 근거로 자료를 선택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며,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과정 해석 능력과 PCK의 발현 양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창구가 된다.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방식을 면밀히 탐구하는 것은 이들의 교육과정 실행 능력과 현재 겪고 있는 한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구체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 연구는 주로 교과서 자체의 구성 체제나 내용 분석에 집중되어 왔으며(안성훈, 차현진, 2023), 교실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보조 자료나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자료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와 동시에, 초임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연구 역시 PCK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거나(설규주, 2009) 발달 과정을 논의하는(지은경, 2021; 정하나, 홍원표, 2016) 등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기간 축적된 PCK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PCK라는 다소 추상적인 전문성이 결국 ‘자료의 선택, 재구성, 투입’이라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수업 행위를 통해 교실 현장에서 가시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재구성 역량이 강조되는 현시점은, 교과서를 넘어선 다양한 자료(디지털 매체, 온라인 플랫폼 자료 등)를 선별하고 변형하는 교사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이다. 수업자료는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과 학생 이해가 만나는 ‘매개체’이자, 경험이 부족한 초임교사가 자신의 PCK를 발현하고 동시에 한계에 부딪히는 ‘핵심 통로’이다. 즉, 초임교사가 어떤 자료를, 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PCK가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구체적인 접근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임교사가 사회과 수업에서 직면하는 특수한 상황과 그들의 내재적, 외재적 요인들이 ‘수업자료 활용’이라는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과를 전공하지 않은 초임교사가 사회과 수업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그것이 실제 수업자료의 선택 및 재구성 전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초임교사의 역동적인 전문성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에서 사회과를 전공하지 않은 초임교사라는 특수성을 지닌 초등교사의 사례를 통해, 그가 사회과 수업자료를 선택, 재구성, 활용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기저에 깔린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과 비전공 초임교사는 교과서와 온라인 자료 등 기존 수업자료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업자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재구성하는가?

둘째, 교사의 개인적 신념과 교수 철학은 사회과 수업자료 활용 과정에 ‘왜’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며, 이러한 실천은 그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초임교사가 ‘사회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교사의 신념, 전문성, 그리고 교육과정 해석 능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수업 실행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신념인 ‘수업관’을 먼저 검토하고, 이 신념이 교과 맥락에서 발현되는 전문성인 ‘내용교수지식(PCK)’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념과 전문성이 ‘수업자료’의 선택과 재구성, 즉 ‘교육과정 문해력’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본다.

1. 교사의 신념과 수업관: 수업 실행의 내적 동기

교사의 수업 실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들이 지닌 수업관, 즉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정하나, 홍원표, 2024). 정하나·홍원표(2024)는 수업관을 ‘지식, 학습, 교사의 역할에 관한 신념과 의도의 상호관련성으로,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바라보는 렌즈’로 정의하며, 이것이 수업 설계, 실행, 그리고 학생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수업관은 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발달의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수업관의 형성은 교직에 입문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된다. 예비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기 전의 가정환경, 학창 시절 경험 등의 개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한다(정하나, 홍원표, 2024). 이러한 개인적 신념은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학습 및 다양한 경험과 결합하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수업관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예비교사 시기에 형성된 수업관이 초임교사 시기에든 일관되게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정하나, 홍원표, 2024).

교직 입문 후, 초임교사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수업관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반성하는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활용한다(정하나, 홍원표, 2024). 다만 이들의

수업관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인적 환경,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의 반응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게 된다(정하나, 홍원표, 2024).

이러한 일반적인 ‘수업관’은 교사의 모든 교육 활동을 좌우하는 포괄적인 철학이며, 이는 ‘사회과 본질관’과 같은 특정 교과에 대한 신념 체계로 이어진다. 박새롬(2012)의 연구는 교사의 ‘사회과 본질관’(예: 시민성 전달, 반성적 탐구 등)이 교과서 활용 전략이라는 특정 수업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교사의 포괄적인 ‘수업관’이 먼저 정립되고, 이로부터 ‘사회과 본질관’이 파생되어 특정 교과 수업의 실행 양상,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초임교사 전문성 발달과 내용교수지식(PCK)

교사의 ‘수업관’이 수업의 ‘왜(Why)’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라면, 내용교수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특정 교과 내용을 특정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어떻게(How)’에 대한 교사 고유의 전문지식이다(Shulman, 1986). PCK는 단순히 내용 지식(CK)과 교육학 지식(PK)을 합한 것이 아니라, 교실 상황에서 두 지식이 통합되어 발현되는 실천적 지식이다(Shulman, 1987).

초임교사의 전문성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 여러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직면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노하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지은경, 2021).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 활동을 관찰, 분석, 평가하고 반성적 실천을 통해 실천적 지식, 즉 PCK를 축적하게 된다.

특히 초임교사의 PCK 발달 양상은 경력교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설규주(2009)의 연구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사회과 수업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표 1〉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사회과 수업 특징 비교(설규주(2009)의 연구를 표로 정리함)

| 구분 | 초임교사 | 경력교사 |
|----------|---------------------------|--------------------------|
| 수업 기획 의도 | 철저한 기획 의도를 가짐 | 다소 느슨하게 구조화된 수업 |
| 재구성 능력 |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화려한’ 재구성 | 교수학습방법 측면보다 ‘내용 중심’의 재구성 |
| 교수 방법 | 뉴미디어 사용 비중이 높음 | 전통적인 자료와 방법을 주로 사용 |
| 내용 지식 인식 | 내용 지식 부족에 대한 부담감 호소 |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에 대한 자신감 |

| 구분 | 초임교사 | 경력교사 |
|-----------|-----------------------|----------------------------|
| 수업 부담감 | 사회 수업 자체에 대한 압박을 느낌 |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음 |
| 교사 전문성 발달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방법)에 집중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내용)로 무게중심 이동 |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초임교사는 ‘철저한 기획 의도’와 ‘화려한 재구성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내용 지식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과 현대 교육이 강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압박감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설규주, 2010). 사회과 교육은 가변성이 높은 사회 현상을 다루며 학습 내용과 방법이 모호하기에 초임교사들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설규주, 2009). 설규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초임교사들은 여전히 사회과 내용 지식의 부족을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초임교사들은 여전히 사회과 내용 지식의 부족을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있다(설규주, 2012).

이처럼 초임교사는 이론만으로 현장을 마주하는 한계 속에서, 학생들과의 실제 수업을 통해 PCK를 구축해 나간다. 결국 초임교사의 경험 부족과 내용 지식(CK)의 미성숙은 필연적으로 ‘수업자료’의 부족이나 미숙한 활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임교사가 수업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은 곧 그들의 미숙한 PCK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3. 교육과정 문해력과 수업자료: 신념과 PCK의 구체적 발현

초임교사의 ‘수업관’(신념)과 ‘PCK’(전문성)가 교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통로가 바로 ‘수업자료’이며, 이 자료를 다루는 역량이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이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교육부, 2024), 이것이 교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해석과 재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과정 문해력이란, 교사가 국가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학생·교실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의미한다(유성열 · 정광순, 2020).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교과서, 학습지, 프레젠테이션, 영상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자료는 핵심 개념을 명료히 전달하는 ‘설명적 기능’과, 학습을 보강하는 ‘보완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숙자, 2001). 이러한 수업자료는 교육과정의 추상적 요구를 교실 현장 속 학습 경험으로 전환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연구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발달을 ‘자료 사용자(user)’에서 ‘자료 개발자(developer)’로의 역할 전환 과정으로 설명한다(김현규, 정광순, 2018). 예를 들어, 사회과 지역

화 학습 자료 개발 연구(윤옥경, 심승희, 2020)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의 위상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주체로 서게 된다.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통제’가 아닌 ‘자율’의 영역으로 인식하며,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변형·삭제·재배열하여 수업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이호담, 2018; 이윤미, 2020).

결론적으로, 초임교사가 수업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그들의 전문성 발달 수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초임교사가 어떤 자료를 만들고, 왜 특정한 자료를 선택하며, 어떻게 변형하여 사용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그들의 내적 신념(수업관)과 전문성(PCK)이 상호작용하며 실천적 지식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통로이다.

Ⅲ.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질적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지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보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통제 불가능한 실제 교실이라는 복잡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보다, 그 현상의 고유한 의미와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설계로는 특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the case)’는 ‘사회과 비전공 초임교사가 사회과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현상’ 그 자체이며, 이는 연구 참여자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 ‘경계 지어진 실체(a bounded system)’(Stake, 1995)로 규정된다.

사례 연구는 ‘어떻게(how)’와 ‘왜(why)’라는 질문을 통해(Yin, 2003) 특정 현상이 실제 맥락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현상은 교사의 개인적 신념, 학생의 반응, 교과서의 한계,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 사례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 변수로 분리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기보다, 이들 모두가 상호작용하는 총체적(holistic) 관점에서 현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 사례(single case)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양적 연구

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교사의 신념, 의사결정 과정, 맥락적 제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이라는 복잡한 현상이 개인의 내적 신념 및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과 역동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1항에서 설계한 질적 사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 문제와 관련된 풍부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일반화와 달리,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풍부한 사례(Denzin & Lincoln, 2018)’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J교사 1인을 단일 사례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J교사는 A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2023년 임용된 초임교사로, 사회과 수업을 일정 기간 실제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 의지가 높아 연구 참여자로 적합하였다.

연구자가 J교사를 특정 사례로 선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일반적인 초임교사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본 연구 문제(비전공 교과, 자료 재구성)를 탐색하는 데 필수적인 독특한 맥락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전공 배경의 독특성이다. J교사는 대학에서 과학교육과 심화 전공을 하였고 사범대 대학원에서 과학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비전공 과목인 사회과 수업에서 내용 지식(CK)의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과학과의 핵심 모형인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확고한 교수 철학을 실현하려는 이중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교수 경험의 독특성이다. J교사는 학부 교생실습 및 과제 수행 시 ‘감정이입적 역사 학습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은 그의 내재적 신념으로 자리 잡아, 초임교사가 된 현시점에서 학생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수업자료를 선호하고 개발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셋째, 자료 활용의 독특성이다. J교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기존 자료가 빈약하거나 자신의 교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자료 재구성자’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요컨대, J교사의 사례는 일반적인 초임교사의 특징으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과학교육 배경의

전문가가 비전공 교과인 사회과를 자신의 확고한 교수 신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수업자료를 재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독특하고 정보가 풍부한 사례로 판단된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높이고,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양상에 대한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는 자료 삼각측정(Triangulation) 방법을 사용한다(Yin, 2003; Denzin & Lincoln, 2018).

〈표 2〉 연구 자료 종류 및 수집 방법(수집 기간: 2023. 10. (1개월))

| 자료 유형 | 수집 방법 | 역할 |
|------------------|------------------|----------------------------------|
| 실제 수업에서 사용된 수업자료 | 문서 수집 및 분석 | 교사의 의도와 실제 실행을 비교하는 데 활용 |
| 초임교사의 수업 | 수업 관찰 및 현장 노트 작성 | 실제 수업 행위, 학생 반응, 맥락적 요인 파악 |
| 초임교사의 내면적 경험 | 심층 면담 및 교사 저널 분석 | 자료 선택 및 활용에 대한 교사의 신념, 고민, 의도 파악 |

주요 자료원인 수업 관찰은 초임교사의 실제 수업 행위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교실 환경 등의 맥락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Yin, 2003).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여, 수업자료 선택 및 제작에 대한 교사의 고민과 신념 등 내면적 관점을 풍부하게 수집한다(Denzin & Lincoln, 2018). 마지막으로, 교사가 실제로 사용한 수업자료(프레젠테이션 파일, 학습지 등)와 수업일지, 교사 저널 등의 문서 자료는 교사의 의도와 실제 실행의 일치성 및 반성적 실천 과정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지은경, 2021; Denzin & Lincoln, 2018).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내적 고민(교사 저널 및 면담 진술)과 실제 수업 행위(수업 관찰 메모 및 수업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J교사는 문화사 수업 전 “문화사가 정말이지 재미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이 지루함을 극복하고자 학생 참여 발표와 미술 감상 4단계를 통합하는 활동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자료 간 해석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한 수업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023년 10월에 사회과 수업을 4회 관찰하였고, 수업 이전과 이후 총 6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실행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의 성찰을 정리

하였다.

수업은 5학년 2학기 역사 단원으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주제에 해당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성취기준 '[6사04-01]영·정조 시기의 개혁 정치와 서민 문화의 발달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의 변화 모습을 탐색한다.'와 '[6사04-02]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정약용, 홍선 대원군, 김옥균과 전봉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옛 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를 중심으로 다룬다.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영·정조 개혁 정치와 조선 후기의 사회 개혁 노력을 주요 학습 요소로 제시한다.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6사04-01], [6사04-02]에서는 영·정조 시기 개혁 정치와 서민 문화의 발달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의 변화 모습을 탐색하고,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탐색하도록 한다(교육부, 2018: 43).'라고 제시되어 있다. 2개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구현한 수업의 학습 문제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사례 초임교사 수업의 학습 문제

| 순서 | 일시 | 학습 문제 |
|----|-------------------------------|--|
| 1 | 2023.10.16.(월) 12:20~13:00 |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알아봅시다. |
| 2 | 2023.10.18.(수) 08:20~09:00 | 서민문화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
| 3 | 2023.10.20.(금) 10:00~10:40 | 서민문화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미술 감상 단원과 연계) |
| 4 | 2023.10.23.(월) 12:20~13:00 |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을 알아봅시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질적 자료는 Braun &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에 따라 분석한다(Braun & Clarke, 2006). 주제 분석은 데이터 내에서 패턴(주제)을 식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유연하고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수행된다.

질적 자료 분석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녹음된 면담을 전사하고, 현장 노트, 교사 저널, 교수학습자료(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활동지, 지도안 등)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 초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록하며 자료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였다. 이후 흥미롭

거나 의미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개념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제를 탐색하였다. 이때 단순히 면담 질문을 주제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자료 속에 내재된 패턴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두 단계에 걸쳐 검토되었는데, 먼저 각 주제가 해당 발췌문과 일관성을 이루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체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주제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 후, 분석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서술하고, 분석적 논점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자료 발췌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분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근거의 연쇄(chain of evidence)를 제공하였다(Yin, 2003).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상생활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므로, 양적 연구에 비해 더욱 섬세한 윤리적 고려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였다. 첫째, 자율성 존중 및 동의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정,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 둘째, 정직성 및 진실성이다. 연구자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하며, 데이터를 날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았다. 셋째, 익명성 및 기밀 유지이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이름, 학교명 등)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J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면담 자료(면담1, 2, 3, 4, 5, 6), 교사의 교사 저널(교사저널1, 교사저널2, 교사저널3, 교사저널4), 실제 수업에서 활용된 교수학습자료(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학습지,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 관찰 전사본 등 다양한 자료를 교차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학문적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개념적 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J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양상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넘어, ‘초임교사의 특성’(설규주, 2012), ‘사회과 본질관’(박새롬, 2012), ‘교육과정 재구성자로서의 교사’(김현규·정광순, 2018; 이윤미, 2020), ‘내용교수지식(PCK)’(정수진, 2014; 설규주, 2009) 등의 학술적 개념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1. 수업자료의 한계 인식 및 재구성 양상

가. 시각적 흐름과 내용 재구성을 위한 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J교사가 활용한 4차시의 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일정한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수업 내용과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주를 보였다. 모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복습-고민(동기유발)-학습문제-목차-내용 전개-정리’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J교사가 아직 자신만의 수업 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업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구조화된 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의 출처 측면에서, 초임교사는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수업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영·정조 수업을 준비하며 “H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 영상자료가 풍부해...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영상 위주(면담1)”라고 평가하며, 영상 자료의 비중을 줄이고 자신의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정했다. 이는 초임교사가 외부 자료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판단에 따라 자료를 주체적으로 변용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1023 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슬라이드 1, 3

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에 몰입시키기 위한 시각적 장치로 적극 활용되었다. ‘오늘의 고민’이라는 코너를 통해 학생들 중 일부를 등장시키거나 교사가 등장하는 등, 이처럼 초임교사는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자료를 배치하여 지식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나. 학생 참여 및 탐구를 위한 학습자료 재구성

초임교사가 활용한 학습지는 단순한 내용 정리용 자료를 넘어, 학생들의 탐구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도구로 기능했다. 이는 단순한 초임교사의 특징이 아닌, J교사의 고유한 교수 철학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1) 학습지 재구성 및 탐구 강화

J교사는 영·정조 수업을 위해 역사 노트를 준비하며, 원본 자료가 “그림은 전혀 없고 글씨만 잔뜩 있고 아이들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담2)”고 판단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다른 선생님의 틀을 활용하되, 내용을 50% 정도 수정하고 출판사 교과서 내용을 덧붙여 배부했다. 이 역사 노트에는 영조의 탕평비를 설명하는 부분에 “나라면 뭐라고 쓸 것 같아? 입장에서 써볼까?”라고 질문하며 학생들의 가치 판단을 유도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 학습문제 | (1)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 |
|-----------|--|
| 1. 용양 정치 | - 학문이나 정치의 정리를 같이하는 집단 - 초기 : 다양한 의견 무교양을 → 나라 운영에 도움 - 활동 같이 같은 의견 대립 → 정치 혼란 ★★★ |
| 2. 영조의 개혁 | - 탕평책 : 학당과 상관없이 인재 필요우 뽑아 나라 다스림 |
| 정치 | → 용인 강화 후 정치 안정 도모 |
| | - 신분교 주활 |
| | - 세습 1, 가족안 형질 끊기 제 권한, 학문과 제도 정비 → 세실 생활 안정 |
| | 탕평책의 새로운 자유롭게 적용이다. ^^ |
| |  |
| | - 탕평비 ★★★ |

[그림 2] 학습지1- 역사 노트

1. 마음열기! 작품을 본 첫 느낌은?

2. 자세이보기! 자세히 보고 표현 재료 또는 관찰한 내용을 적어볼까요?

3. 의미찾기! 왜가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평가하기!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써봅시다.

[그림 3] 학습지3-미술 감상지 겸 판매 카드

또한 서민 문학 수업에서는 교사가 작품의 의미를 바로 설명해주기보다,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도록 유도하였다.

2) 감정이입적 학습의 구현

실학 수업에서는 ‘실학국 대통령 선거’ 시뮬레이션 활동지를 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J교사가 과거 학부 수업과 교생실습 시 감정이입적 역사학습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과 J교사가 읽었던 2003년에 발행된 학위 논문의 부록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전면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학생들은 연설문을 읽고 토론하며 투표하는 활동을 통해, 실학자들의 개혁안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중시하는 J교사의 신념을 실현하였다.

3) 타 교과 내용교수지식(PCK)의 통합

J교사는 자신이 비전공 교과인 사회과 수업을 진행할 때, 교원 양성 과정에서 습득했거나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된 타 교과(미술과, 과학교육)의 교수학습 이론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사회과 내용 지식(CK)이나 사회과 고유의 내용교수지식(PCK)이 부족한 초임교사가 자신의 강점 영역을 활용하여 비전공 교과의 수업 전문성을 보완하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미술 교과와의 통합 사례에서 J교사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를 다루는 차시에서 미술과의 감상 수업 이론을 활용했다. 당시 5학년 미술과 수행평가 중 '감상' 영역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감상 수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J교사는 미술 교과교육론 시간에 배운 감상 이론을 떠올리고, 감상 활동에 표현 활동을 어느 정도 녹여야 한다는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업을 구상했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풍속화 패러디' 자료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두고 "패러디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패러디 자료를 다운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10.20 성찰 일지). 이는 주어진 이론적 지식을 현장의 시간 제약과 학습 목표에 맞게 선택하고 변형하는 실천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즉, 이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맥락을 고려하여 이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초임교사의 초보적 PCK 형성 단계가 수업자료 활용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J교사는 자신의 전공 배경인 과학교육의 교수 방법론을 사회과 수업에 통합하였다. 그는 역사 수업을 구상할 때 스스로 "나의 역사 수업은 탐구에 뿌리를 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며, 특히 "과학과의 순환학습모형(탐구)에서 탐색 의미를 다시 반추해 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10.18 성찰 일지). 이는 그의 탐구 중심 수업 철학이 사회과 전반의 탐구 강조를 넘어, 과학교육에서 습득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순환 학습 모형)과 방법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타 교과의 명료한 교수 이론 및 방법론을 비전공 교과의 수업자료에 결합하고 수정하는 J교사의 실천은, 내용 지식의 부족을 교수학습 방법 지식으로 보완하는 초임교사의 특성이자, 새로운 교과 PCK를 구축하는 주체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 기존 교육과정 진단: 교과서의 단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J교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내용을 단편적으로 서술한다고 비판한다. J교사는 특히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조선의 복잡한 봉당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지식 없이 탕평책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J교사는 조선 후기 문화사 파트 역시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빈약하다”고 평가하며, 동료 교사들과의 논의 끝에 검정교과서 출판사를 내년도 선정할 때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다.

더 나아가, J교사는 교과서의 구성 순서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서민 문화보다 앞서 배치된 교과서의 흐름을 지적하며, 서민들의 삶의 변화(서민 문화)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실학(실학자들의 개혁안)을 배우는 것이 역사적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훨씬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교과서를 쭉 봤는데 일단 저는 교과서를 먼저 보긴 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다루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검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교과서를 봐야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과서를 봐요. 근데 물론 교과서로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딱 정비용 그 정도로만 저는 교과서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배경이 하나도 없이 탕평책을 딱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애들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봉당 정세를 좀 더 녹이자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 한국사 검정시험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게 아직도 너무 기억나거든요. 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걸 해결한 게 영조, 정조인데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면담1, 05:26~21:41]).

이러한 판단은 J교사가 단순히 주어진 커리큘럼을 따르는 수동적 ‘사용자(user)’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개발자(developer)’로서의 주체임을 보여준다(김현규·정광순, 2018).

라. 수업 재구성 과정: 온라인 커뮤니티와 ‘체계적 절충주의’

경력 교사들과 달리 개인의 수업자료가 없는 초임교사는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재구성 과정을 거친다. J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 목표와 내용의 범위를 파악하지만, 실제 수업 자료는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크게 의존한다. 그곳에서 특정 키워드(예:

‘영조’, ‘서민 문화’)로 자료를 검색하여 자신의 수업 목표에 맞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활동지를 선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그는 여러 교사가 제작한 자료들을 조합하고 수정하며, 자신의 설명이나 학생들의 사진을 추가하여 수업자료를 개인화한다.

또한, 그는 복잡한 개념(예: 봉당 정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의 요약 영상을 활용하고, 교과서에 부족한 내용은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과거에 읽었던 학위 논문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의 교수 실천은 출판사의 공식적인 자료를 넘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주된 자원 창고로 활용하는 현대 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교육 자료의 수집, 선별, 그리고 재구성을 주도하는 교육과정 혁신가임을 의미한다.

2. 교수 철학의 반영과 전문적 정체성 형성

가. 사회과 본질관의 반영

사회과 본질관에 따른 J교사의 교과서 활용 전략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교사의 본질관이 실제 교과서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세롬(2012)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반성적 탐구 관점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관점을 지닌 교사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탐구 활동과 자료를 선호한다. 반대로 시민성 전달 관점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교과서의 명확한 설명적 텍스트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J교사는 정치사 수업은 시민성 전달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많아 선별만 하면 되므로 편하게 느꼈다. 반면, 문화사 수업은 반성적 탐구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렇다보니 새롭게 구성해야 할 부분이 많아 까다롭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미술이나 국어와 같은 타 교과와 연계한 융합 수업을 시도했다. 이는 교과의 특성과 기존 자료의 풍부함이 교사의 사회과 교육관과 수업자료 활용 전략 및 수업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J교사의 사회과교육 본질관은 반성적 탐구 관점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흥선대원군 수업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상 상황을 만드는 활동을 구상하고, 실학 수업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활동을 하이라이트로 두는 등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에 큰 비중을 두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를 강의식 설명이 아닌 학생들의 가치 판단 활동

에 두었다고 언급하며, “지식의 전달”을 넘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약간 고민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나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학과를 선택 했을까? 물론 이게 시대적 흐름이 중농 나오고 중상 나오고 국학과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역사적 인과관계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람이라면 (각자의 생각이) 무엇에 가까웠을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한번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걸 고민해 봐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개혁안을 썼던 것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활동을 구성했어요.([면담4, 03:40~08:26]).

이처럼 그의 수업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 참여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반성적 탐구 관점에 기반하고 있으며, 풍속화 패러디 학습지를 통해 김홍도의 그림을 현대의 문화(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춤 대결)와 연결 짓는 등 학생들의 흥미와 연관된 맥락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자료 활용에 나타난 고민과 실천적 조율

면담과 교사저널 분석 결과,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이면에는 초임교사로서 겪는 여러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과 수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설규주, 2010), 자신만의 수업관을 형성하고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는(정하나, 홍원표, 2024) 초임교사의 전형적인 특징과 J교사 고유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일련의 수업 모듈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하나의 유기적인 내러티브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내러티브는 영정조의 위로부터의 개혁(정치사)에서 시작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따른 서민들의 삶과 문화 변화라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문화사)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드러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실학자들의 지식인적 대응(사상사)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서사적 흐름은 학생들이 역사를 단절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사가 이러한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핵심 전략은 재미의 다층적 기능 활용이다. 재미는 단순히 동기유발의 도구를 넘어,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고(탕평채 비유), 반복 학습을 유도하며(힙합 노래), 학생들의 정서적 몰입을 촉진하는(타임머신) 핵심적인 교육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확인

하고, 이를 다른 수업에도 반복적으로 적용하며 교수 역량을 강화했다.

1) ‘재미와 의미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업관

J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실천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수업관은 ‘재미와 의미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는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이끌어내는 요소이며, ‘의미’는 교육과정의 목표, 즉 지식 습득 및 가치 탐구를 포함하는 학습 성취를 의미한다. J교사는 이 두 요소의 조화가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J교사의 ‘의미’ 추구는 그의 과학교육 전공 배경에서 기인한 ‘탐구 중심’ 교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진짜 공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학생들이 “탐구하면 느끼는 희열”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과에서도 강조되는 탐구 학습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명확한 가설 설정, 자료 분석, 결론 도출 등 과학교육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역사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탐구 철학은 ‘실학국 대통령 선거’라는 시뮬레이션 활동지로 구체화되었다. 이 활동지는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학생들이 농민 대표, 상공업자 대표가 되어 가상의 ‘실학국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수업에서 J교사는 조선 시대 복장을 입고 학생들을 가상 상황에 몰입시켰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실학자(후보)의 개혁안이 왜 타당한지를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다.

역사에서 재미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타교과 융합 수업 또는 탐구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10.23 면담).

이처럼 J교사가 수업자료를 재구성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데서 벗어나, 역사 현상을 탐구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그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그의 탐구 중심 수업관이 반영된 결과이다.

2) 교육과정의 제약과 교사 자율성 사이의 갈등과 재구성

초임교사는 교과서의 단편적인 서술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화사 부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 너무 단편적”이라고 언급하며,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했다.

교과서 흐름 자체가 통합돼서 구성했다고 하지만 교과서 흐름 자체가 정치사 문화사를 섞는 것도 아니고 정치사 그다음에 문화사 쪽 수업하게 구성되는 데다 학창 시절 때부터 문화사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재미있게 하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국어 등과 간학문적으로 연계할 게 많으니까 활동 위주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면담2 16:43~18:58).

대표적인 사례로, 한 차시로 배정된 조선 후기 문학과 미술을 두 차시로 확장하고, 미술 수업은 미술 교과의 감상 단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설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교과와의 내적 연계성과 학생의 학습 경험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초임교사의 자율성을 보여준다.

3) 대학 시절의 이상과 현장 실천의 연결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방식에는 대학 시절의 학문적 경험과 교육적 신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면담 과정에서 “학부 때 그런 고생했던 경험이 저의 원동력”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감정이입적 역사학습’과 ‘시뮬레이션 학습’은 그의 수업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였다.

저는 학부 때 3.1운동을 주제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는 수업을 구성하는 기말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약간 거기에 꽂혀서 감정이입 학습을 시뮬레이션 게임이랑 녹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호평을 받아 A+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들면서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비 교사 대상으로 수업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이거 나중에 현장에서 해봐야겠다 했어요. 교생 실습 때에는 흥선 대원군을 하면서 감정이입 해서 완전 쇼를 했어요. 제가 가서 한복 입고 약간 이래서 입고 ‘나 지금 흥선대원군이고 너희들은 신하’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게 극찬을 받았고 그게 교생 대표 수업이었거든요. 선생님들에게 극찬을 받은 거예요(면담1 58:44-59:56).

실학 수업에서 ‘대통령 선거’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것은 “내가 자신 있는 사회과의 임상 장학 모습이라면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감정이입’이다”(1023 성찰일지)라는 신념의 발현이었다. 또한, 서민문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문학 작품을 읽고 의미를 탐색하게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수업은 (중략) 탐구에 뿌리를 둔다고 생각한다”(교사저널2)는 그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대학 시절 형성된 이론적 지식과 교육적 이상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구체적인 수업자료로 구현하려는 노력은, 초임교사가 자신의 수업관을 형성하고 전문성을 구축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 교수 철학의 기원과 전문적 정체성

1) 탐구 기반 철학의 기원: ‘실용적 배움’의 개인사

초임교사의 교수 철학은 교대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과학 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 연구에 참여했던 그의 개인적 경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과학 교육과정의 명확한 동사들(실험한다, 분류한다)과 달리, 사회과 교육과정의 ‘탐색한다’나 ‘탐구한다’와 같은 모호한 동사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실은 ‘탐색한다’를 조금 과학처럼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교사의 활동 방식을 좀 제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오히려 ‘탐색’은 교사의 활동을 좀 고려한 게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탐색과 탐구가 구분 없이 사용된 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생각도 듭니다. 탐색을 위해서는 탐구가 동원되고, 그리고 탐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면담1 27:02-28:15).

그는 대학원 시절의 연구 경험을 ‘진짜 공부’라고 표현하며, 교수가 떠먹여 주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모르는 것을 탐구하며 느끼는 희열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J교사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음을 체득하였다. J교사는 이러한 희열을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수업에서 학생 탐구를 최우선에 두는 철학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교사 개인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이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교사의 ‘문화자본’이 PCK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수진(2014)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또한, J교사의 교육 철학에는 군 복무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취득했던 경험과 같이 실용성과 목표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J교사는 지식이 현실적인 보상(예: 포상 휴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수업에서 단원 평가를 단순한 시험이 아닌 복습과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즉, J교사의 교육 철학은 이론적 탐구와 실용적 배움의 가치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들은 교육적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2) 교사의 역할: 범교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모색

저는 그냥 약간 이런 융합을 되게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국어랑 사회도 엮기도 하고 엄청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이제 아무래도 사범대 대학원에는 중등 교사들이 많은데 ‘초등은 과학교육에 전문성이 없잖아’를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깔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짜증 나는 거예요. 우리도 4년 동안 배웠는데 단지 전문성이 기준이 다른 거일 뿐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12개 과목의 각론과 총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과 통합 수업이라는 게 초등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계속했거든요.(면담3, 13:37-14:27).

J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중등교사들이 특정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면, 초등교사는 여러 교과목에 대한 교육론과 내용학을 모두 이해하고 교과 간 내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범교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수업은 이러한 전문성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다.

J교사는 사회 수업을 준비하며 미술과(미술 감상), 국어과(문학 작품 해석) 등 타 교과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서민 문화를 다루는 차시를 확장하여 문학(사설시조, 판소리, 탈춤)과 미술(풍속화, 민화) 수업을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교과 통합은 단순히 여러 과목을 섞는 것을 넘어, 사회과 내용 지식(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을 미술과의 감상 방법론(펠드먼의 4단계 비평법)을 통해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J교사의 교육 실천이 단순한 커리큘럼 이행을 넘어, 교사 스스로가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창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3) ‘이론-실제’의 간극: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간극 탐색

J교사는 교육 이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정이입적 역사 학습’, ‘과정 중심 평가’ 등 다양한 교육 이론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러한 이론적 이상이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J교사는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매시간 모든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동료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언급한다.

저는 사실 평가라는 게 초등에서는 진짜 교사의 (행정적인) 업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왜냐면 보통 지금 매우 잘함, 잘함, 보통에서 보통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잘 안 주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학부 때 교육 평가 배우면서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로 대학원을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과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평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관찰 평가하고 누가 기록하고 해야지 했는데...평가만큼은 이론과 실제 현장과 학습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러한 간극은 J교사가 이론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교육 목표에 맞춰 실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J교사는 평가의 본질을 ‘성장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등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보완한다. 이는 그가 이상적인 교육 철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실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철학을 구현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J교사가 교육적 이상주의자와 실용주의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일종의 ‘이상적 현실주의자’임을 드러낸다.

교사의 수업 실행은 그들의 내적 신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 맥락 요인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특히 초임교사는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반응을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초임교사의 사례에 따르면, J교사는 교생 실습 시절 복장을 갖춰 입고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등 극적인 요소를 활용했으나, 초임교사로서 공개 수업을 준비할 때는 다른 교사들에게 관중으로 보일까봐 이러한 연기나 소품 사용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이상적인 수업관이 학교 사회의 맥락적 속성인 동료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이효진, 박인우, 2022).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과를 전공하지 않고 과학교육을 전공한 배경을 지닌 초임교사 J의 사례를 통해, 그가 사회과 수업자료를 선택, 재구성, 활용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 기저에 깔린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교사저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학습지 등 실제 교수학습자료를 삼각측량 기법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임교사가 기존 수업자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업자료

를 ‘어떻게’ 선택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 문제 1의 답을 제시한다. J교사는 먼저 교과서의 단편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 초임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교수 철학과 학생 맥락에 맞게 자료를 비판적으로 선별, 수정, 보완하는 ‘개발자’로서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교과서의 서술 순서를 재배치하고, 타 교과인 미술과의 PCK를 융합하여 새로운 학습지를 제작하는 등의 재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의 자료 재구성 행위는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능동적인 전략이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의 개인적 신념과 교수 철학이 수업자료 활용에 ‘왜’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며, 이 실천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 문제 2의 답을 제시한다. J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기저에는 ‘탐구’와 ‘감정이입’이라는 확고한 교수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이 반영된 이유는 그의 과학교육 전공 배경이 ‘탐구’를 강조하게 하였고, 학부 시절의 성공적인 시뮬레이션 수업 경험이 ‘감정이입’을 중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실학국 대통령 선거’ 활동지, ‘풍속화 패러디’ 학습지처럼 학생 참여와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자료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J교사는 이러한 실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닌 ‘범교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동료 교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상과 현실을 조율하는 ‘이상적 현실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초임교사에게 수업자료 활용은 단순히 수업을 준비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교육적 신념인 수업관과 전문성인 PCK를 교실 현장에서 구현하고 검증하며 성장해가는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J교사의 사례는 PCK가 부족한 초임교사가 ‘수업자료’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어떻게 사회과 내용 지식을 보완하고 강점인 탐구와 감정이입 신념을 구현하며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초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임교사 연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J교사가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와 자신의 학부 경험에 의존했듯이, 많은 초임교사가 실질적인 수업자료 재구성 전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초임교사 지원은 단순히 수업 기술이나 학급 경영 노하우를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교사들이 J교사처럼 자신의 신념을 수업에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자료 재구성 사례, 특히 타 교과 융합이나 학생 탐구 중심 자료를 공유하며, 동료 교사들과 수업자료 개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한 명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이므로 J교사의 수업 행위를 일반적인 초임교사의 수업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J교사의 독특한 맥락이 자료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초임교사의 수업자료 활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임교사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교직 생애 주기에 따라 수업자료 활용 방식과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이 교사의 의도와 실천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교사의 수업자료 재구성 실천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 교과 역량 및 학업 성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성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5. 09. 30. ※ 논문 수정일: 2025. 12. 04. ※ 게재 확정일 : 2025. 12. 10.

〈참고문헌〉

- 김현규, 정광순(2018). 교육과정 자료 사용자로서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개발자로서 교사 개념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2(3), 49-72.
- 교육부(2024).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 박새롬(2012). **초등교사의 사회과 본질관이 교과서 활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형국, 한수경, 한희진, 양정호(2018). 초등교사의 교직사회 적응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초임교사는 어떻게 기성교사가 되어 가는가?. **교육논총**, 25(2), 41-88.
- 설규주(2009). 초등 사회과 수업에 나타난 내용교수지식(PCK) 분석 연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2), 29-51.
- 설규주(2010). 초등 예비교사와 초임교사의 사회과 수업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사회과교육**, 49(2), 53-71.
- 설규주(2012). 초임교사의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업 전문성의 변화와 한계를 고려한 컨설팅의 방향. **사회과교육**, 51(1), 65-89.
- 유성열, 정광순(2020).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 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33(3), 123-143.
- 윤옥경, 심승희(2020). 청주시를 사례로 한 지역화 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초등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위상 변화 탐색을 기반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5(1), 53-75.
- 이윤미(2020).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양상 및 유형 탐색: 교육과정 자료 사용 및 동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8(4), 207-236.
- 이호담(2018). **초등 교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효진, 박인우(2022).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에서 수업방법 선택 기준과 조건 탐색. **교육공학연구**, 38(3), 699-741.
- 전숙자(2001).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정하나, 홍원표(2024). 초등 초임교사의 수업관 형성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초등교육연구**, 37(2), 217-240.
- 지은경(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1), 103 - 124.
- 황수지(2019).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어려움과 학교 분위기에 따른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학교와 수업 연구**, 4(2), 35-55.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Denzin, N. K., & Lincoln, Y. S. (Eds.).(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Los Angeles, CA: Sage.
- Shulman, L. S.(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 4-14.
- Shulman, L. S.(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1-22.
-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Thousand Oaks, CA.
- Yin, R. K.(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ition, Sage, Thousand Oaks.

〈Abstract〉

Understanding a Novice Teacher's Use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al Materials

Rhee, Seo-Young¹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qualitative case study of a no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their use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al materials. The study ensured construct validity through triangulation, utilizing class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document analysis, and teacher journal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teacher's personal teaching beliefs were continuously shap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hat these evolving beliefs directly influence choices and strategies for selecting and using instructional materials. In a fifth-grade history unit, the participant teacher critically reconstructed presentation resources, worksheets, and simulation activities to promote student inquiry and engagement. Observations further revealed how the teacher overcame the limitations of both online profession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textbooks, illustrating how teaching beliefs and a 'social studies epistemological stance' crystallize into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The processes of selecting, developing, and reconstructing materials proved vital to the novice teacher's professional growth and to strengthening curriculum literacy. The teacher's use of a "balance of enjoyment and meaning" to bridge theory and practice suggests that support policies for novice teachers should prioritize enhancing their autonomy and material-reconstruction capabilities.

Keywords : novice teachers; social studies instructional materials; PCK; curriculum literacy; teaching beliefs; reconstruction

1. Tea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oonue@snu.ac.kr (Lead Author)